잔인한 전도의 결과, 거룩함

(살전4:1~12)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잔인한 전도의 결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잔인한 전도의 결과가 거룩함이라는 얘깁니다.
즉, 잔인하게 전하는 십자가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날 때, 주제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의 자발적인 도움을 계기로 해서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목표가 박사학위를 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박사학위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박사학위는 박사학위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독일에 가서 듣다보니까 이 박사학위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려 네 가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꼴로 맨 아래등급을 받게 됩니다.
독일어로는 ausgezeichnet 라는 등급입니다, 이게 영어로 excellent 라는 뜻이에요.

박사학위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데 왜 excellent 라고 등급을 매길까?
박사학위를 안 받은 사람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비전문가의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박사학위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라 해도.
아마 그래서 excellent 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등급으로, 100명 중에 97, 8명은 이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야든지 박사님, 박사님 하면 대부분 이 등급에 속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 등급인 셈이죠, 거의가 다.
이 등급을 '꿈 라우데'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ausgezeichnet 라고 하는 제일 낮은 등급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뛰어나다는 얘기고, 이 '꿈 라우데'라는 말은 전문가들이 볼 때 '아, 칭찬할 만하다'라는 등급입니다.
대부분 이 등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명 중에 한 명, 나아가서 1000명 중에 한 명 나온다는 그런 등급이에요.
박사님 100명 중 한 명 나온다는 이 등급은 '마그나 꿈 라우데'입니다.
'꿈 라우데'에 '마그나'라는 말이 붙어요, 마그나라는 말은 영어의 great 라는 말입니다.
즉,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학위논문은 칭찬할 만한 정도를 넘어서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 단계는 만 명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박사들 만 명 중에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쑴마 꿈 라우데'에요, '쑴마'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highest, 가장 높은.
그 박사학위 논문의 분야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경지를 드러내준 논문이라고 해서 '쑴마 꿈 라우데'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급과 관련해서 유학생들 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쑴마 꿈 라우데'를 받았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는 신학부분이니까, 이 분야에서 위대한 학자들도 그 등급이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가서 순교하신 '본회퍼'목사님의 박사논문이 바로 만 명 중에 하나 나온다는 '쑴마 꿈 라우데'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칼 바르트에요, 제가 연구한 분인데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고 가톨릭과의 대화에서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꼽는 분이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대학만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20세기 개신교 신학을 대표하는 분이 되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참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박사학위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분들 같으면, 거룩함은 구분된다는 뜻, 차별화를 얘기한다, 그리고 보통분들 같으면 깨끗함 혹은 엄숙함,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함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는 데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등급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냐 하면, '쑴마 꿈 라우데' 가장 높은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내용을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쑴마 꿈 라우데' 가장 높은 행복감, 가장 높은, 더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어, 돈을 번다,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도 타당한 기쁨이 있고 잘못된 기쁨이 있는데, 타당함과 부당함을 다 떼 내고 그냥 기쁨 자체만을 얘기해도 돈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아우스게짜이흐네트(ausgezeichnet)'의 네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일 겁니다.
excellent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대단하니까 excellent하게 보이지만, 정말 기쁨 전문가가 볼 때는 만족 행복 전문가가 볼 때 돈을 벌어서 기쁜 것은 4등급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거 아무리 기뻐봐야 '꿈 라우데' 정도,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정도.
칭찬할 만한 그런 기쁨, 약간의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기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뭐냐?
쑴마 꿈 라우데, 가장 높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란 것은 가장 높은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운데, 내 마

음에 그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우린 자꾸 거룩함을 엄숙하고 깨끗한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더럽다고 피했던 창기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주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 기쁨, 만족을 볼 때 최상의 등급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아내를 대할 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도 헬라의 이방 종교적 영향 아래 있으면서 종교 제의적 음란함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올바른 부부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올바른 부부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지 확장해서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아담이 만들어진 뒤 제일 먼저 맺은 인간관계가 하와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처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인간관계도 아내를 대할 때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간관계의 관문이 아내요 남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존귀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는데, 물건 값 같은 것을 가장 비싸게 대하라는 얘기에요.
비싼 존재로 대하라는 얘깁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 어떻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마치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인가?
아니, 그렇게 엄숙하고 딱딱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은 더럽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가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을 대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한 예배 분위기 같은 것을 상상하면 거룩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쑴마 꿈 라우데' 가장 최상의 등급의 기쁨과 만

족과 행복을 갖고 아내를 대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색욕.
그 얘기는 아내를 대할 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와 관계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이미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대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최상 등급의 행복과 기쁨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만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분들만 하늘에 계셨다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대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겠어요?
최상의 좋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 좋은 것을 찾아서 채워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은 우리 마음에 채워놓을 수 있는 대상 중에 최상급의 좋으심, 더 이상의 좋으심은 없다.
우리는 돈을 벌어 좋아하려 하고 자식을 잘 키워 좋아하려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 좋아하려 하고, 관직이 높아져서 좋아하려 하지만 최상의 좋음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최상으로 좋은 분입니다.
최상급으로 좋은 대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그 최상급으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이 생겨나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잔인한 전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초에 전도 받을 때부터 잔인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잔인한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잔인한 전도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거룩함에 이릅니다.
가장 최상급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잔인한 전도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여간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은 죄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뭔가에 마음이 끌립니다,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사업 마음에 끌어안고, 이게 잘 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그 사업을 마치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사업을 잔인하게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서 떨궈져나갈 각오가 돼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에서 찢어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지로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찢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마음의 살 중의 살 아닙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식이 찢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찢어져나가고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쑴마 꿈 라우데 등급이신 하나님, 가장 최상의 좋으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잔인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잔인하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교인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밝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최상급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백설 같아야 돼요.
모든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찢어내야 되는데, 그 찢어냄의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 역사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냥 한 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마음이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밝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내 마음에서 살이 되도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십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찢어내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면서 다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고통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 그 십자가사건이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어낸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떨어져나가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오시고 '쑴마 꿈 라우데'의 등급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될 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꾸 거룩함이란 말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이거 큰 오해에요.
거룩하면 올바른 도덕적인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위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의가 이들 같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면 틀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흠을 잡을 수 없지만 그 마음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행위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내 행위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간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자꾸 목에 힘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거룩해지려 하지 말고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마음의 거룩해짐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집니까?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밝히 보거늘'이라는 말처럼 밝히 보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던 것들이 다 떨어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만 떨어져나가면 좋은 게 없네? 아니요!
쑴마 꿈 라우데 등급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연결되면서 내 마음이 쑴마 꿈 라우데 등급의 기쁨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들어갈 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에 젖은 행동과 행복에 젖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얻은 행복이에요?
쑴마 꿈 라우데 등급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감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와 이웃을 대하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거룩함, 딱딱하고 무겁고 무조건 차별화가 일어나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최상급의 기쁨의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다.
최상급의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최상급으로 좋으심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십자가를 잔인하게 받아들여, 잔인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잔인함을 통해서 마음이 백설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된 최상급의 기쁨인 거룩함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다 행복에 젖은 말과 행동이 나와서 옆으로 옆으로 행복과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다, 라는 내

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좋으심 자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하여 잔인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나가게 해 주시옵시며, 기필코 하루하루 최상의 좋으심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최상의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